

84-2-1778

# 統一安保教育 教授技法

열 략 용  
(특별 열람실)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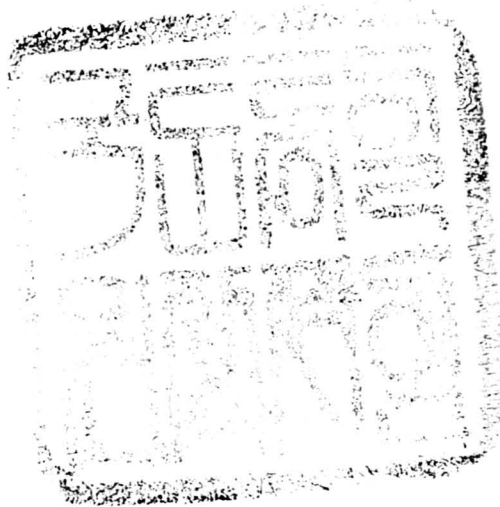
國 土 統 一 院  
統 一 研 修 所



# 統一安保教育 教授技法

鄭 世 九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副教授)



國 土 統 一 院  
統 一 研 修 所

# 目 次

1. 序 論 .....	3
2. 統一安保教育 教授方法模型과 教授技法 .....	5
가. 教授方法模型 .....	5
나. 教授技法의 理論的 根據 .....	11
3. 統一安保教育 教授技法의 活用方案 .....	17
가. 講義法 .....	17
나. 討議法 .....	33
다. 問答法 .....	47
라. 混合法 .....	59
4. 結 論 .....	64

# 1. 序 論

통일안보교육 전문요원은 전국 각지에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끊임없는 國民啓導活動을 벌이고 있다. 학교교육요원은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훈교육요원은 각 군 장교 및 사병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사회교육요원은 일반성인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제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1980 년도에 통일연수소에 실험전문요원과정<sup>1)</sup>이 설치되고 전문요원연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 3년간(81~83년) 제도활동에서 거둔 실적은 量的인 면에서 방대하다.<sup>1)</sup> 그러나 실제 그 성과와 내실화를 기할 수 있었는가의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문제점은 적지 않다. 그중의 하나가 본 교재에서 주로 다루게 될 효과적인 教授技法의 活用問題이다.

교수기법의 選定과 活用은 교육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제도활동의 경우 그 계획이나 실적보고의 어디에서도 교수기법의 활용문제는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통일연수소에서 조사한 83년도 상반기 국민제도활동 실적통보에 의하더라도 활용되고 있는 기법은 오직 강의법 하나로 밝혀진바 있다.

본 교재에서는 통일안보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도움을 주기

---

註1) 3년간 배출된 전문요원수는 2,633명이며 이들 전문요원의 제도활동실적은 총 30,890회에, 51,136시간이며 대상인원은 984만명이 넘는다.

위해 앞으로 통일연수소에서 연수를 받은 전문요원들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제도활동을 함에 있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기법 및 그 활용방안을 개발, 제공하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教授方法模型과 教授技法別 理論的 根據를 제시하고 동시에 各技法別 活用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교재에서는 첫째로 국내외의 教育課程 一般論과 政治教育, 價値教育, 社會科教育 등의 分野에서 이제까지 연구개발된 教授理論과 實際 教授戰略을 다루었으며, 다음으로 본 교재의 목적상 理論연구에 그치지 않고 전문요원의 제도실적보고와 연수중인 전문요원과의 對談을 통하여 얻은 자료를 첨가함으로써 국민제도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본 교재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집필자의 통일연수소 강의경험과 관련되는 先行研究結果가 많은 참고가 되었다. 집필자는 지난 3년간(1981~83년) 통일연수소에서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國民精神教育 教授技法」을 강의하였으며, 그 교재로 「國民精神教育의 效率的 施行을 위한 方法模型開發」을 집필, 사용하여 왔다.

또 1983년 말에는 當時까지 활용하였던 상기 교재를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통일안보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수기법개발」을 연구한바 있다.

본 교재의 접근방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문헌연구와 조사연구에 개발연구 방법이 첨가된 복합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본 교재는 국내외의 여러 관련분야에서 개발된 교수

방법 이론과 실제계획이 통일안보교육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나온 하나의 응용적 연구물로서 그 적절성을 위해서는 아직도 더 많은 후속연구를 필요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 2. 統一安保教育 教授方法模型과 教授技法

### 가. 教授方法模型

통일안보교육 교수방법모형의 정립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教授方法 (Teaching Method) 과 教授技法 (Teaching Technique) 과의 의미상의 차이점을 분명히 밝히는 일부터 시작하여야겠다.

교수방법은 교수자의 哲學이나 姿勢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접근법을 말하는 것이다. 반면에 교수기법은 교수자가 그의 課題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수방법은 教授者 中心의 방법과 學習者 中心의 방법으로 양분되고 이를 注入式 혹은 解說式 方法과 探究式 혹은 問題解決式 方法이라고 부른다. 한편 교수기법은 수단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이제까지 알려진 교수기법은 약 140여종이 되고 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수방법이라고 稱하는 것은 대부분 이 교수기법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통일안보교육 교수방법모형을 정립하기로 하자. 어떤 교육에서든지 교수방법모형은 그 교육에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과정을 효과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同 모형 정립을 위하여 제일 먼저 하여야 할 일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국토통일원의 「'83年度 統一安保教育 實施指針」에 의하면 통일안보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透徹한 國家觀 및 우리 體制의 優越性에 대한 信念의 內面化
- 民主福祉國家 建設에의 能動的 參與意識 培養
- 民族史的 正統性에 입각한 우리 統一政策의 基本理念 認識 및 그 正統性 確信
- 大韓民國의 主導下에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이룩할 수 있다는 信念과 進取的 氣像 鼓吹
- 國家 將來를 위태롭게 하는 理念的 混亂의 拂拭 및 護國安保意識의 強化

이와 함께 통일안보교육이 넓은 의미의 국민정신교육의 一環으로 추진된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국민정신교육의 일반목표<sup>2)</sup>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民族·國家 共同體意識과 愛國愛族精神 함양
- 國力伸張 意志와 進取的 氣像 고취
- 民主國民의 資質과 能力배양

상기한바 통일안보교육 그리고 국민정신교육에서 제시된 목표를 종합하여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목표분류, 즉 지식, 사고기능, 가치·태도, 행동·행위로 나누어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각 목표별로 그 성격을 밝힌후 통일안보교육의 목표를 생각하려 한다.

---

註 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國民精神教育基本指針書, 1983.

## 〔 知 識 〕

국가와 사회의 진로와 좌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속에서 개인이 취할 길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되는 내용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식은 보통 事實知識, 概念知識, 一般化知識으로 분류되는바 사실은 감각에 의하여 입증되었고 입증될 수 있는 사건, 대상, 인물 그외 다른 현상에 관한 특수 근거자료라고 할 수 있고 개념은 일단의 사물, 상념, 사건 등을 분류 혹은 구분하는데 사용되는 추상적 단어나 句를 말한다. 일반화는 둘 혹은 그 이상의 개념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진술로, 원칙이나 법칙과 같은 것이다.

통일안보교육을 통하여 습득하여야 할 지식을 앞에서 지적한 통일안보교육과 국민정신교육의 목표로부터 추출하면 우리 體制의 우월성, 민족사적 정통성에 입각한 우리의 통일정책과 그 정당성, 국가 장래를 위태롭게 하는 이념적 혼란 등에 관한 것이다.

## 〔 思考技能 〕

사고기능은 사회현상을 기술, 설명, 분석하는데 필요하며 동시에 습득한 지식을 신념이나 행동과 연결시키는데도 필요하다. 사고기능은 보통 資料蒐集技能, 知的技能, 決定내리는 技能, 그리고 人間關係 技能 등으로 나누어진다. 자료수집기능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처리하는 기능이며 지적 기능은 사건이나 사물을 비교하고 사물을 분류하고 결론을 내리며 예측을 하는 등의 기능이다. 결정내리는 기능은 결정의 대안이나 결정의 결과를 생각하는 기



능이고 인간관계 기능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협조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등의 기능이다.

통일안보교육을 통하여 습득하여야 할 기능은 민주복지국가 건설과정에 참여 협조할 수 있는 기능이며 앞에서 지적한 모든 분야의 思考技能을 습득 民主國民으로서의 기초적 자질과 능력을 지니게 되는 것을 뜻한다.

### [ 價値 · 態度 ]

가치와 태도는 사람의 행동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情意的 영역을 뜻한다. 가치와 태도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내려질 수 있겠으나 그중에서 가장 설득력있는 것중의 하나는 가치를 「한 특수한 行爲의 樣式이나 생활의 目的 狀態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반대되는 것보다 더 낫다는 지속적인 信念」이라고 하였고 태도를 「한 대상이나 사태에 대한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신념 조직이며 사람들을 어떤 選好의 방식으로 反應케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3)</sup>

통일안보교육을 통하여 습득하여야 할 가치와 태도는 앞에서 지적된바 거의 모든 통일안보교육 목표를 포함한다. 투철한 국가관 및 우리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주도하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신념과 진취적 기상 등이 이에 해당된다.

---

註3) Milton Rokeach, The Nature of Human Values ( The Free Press, 1973).

## 〔行動·行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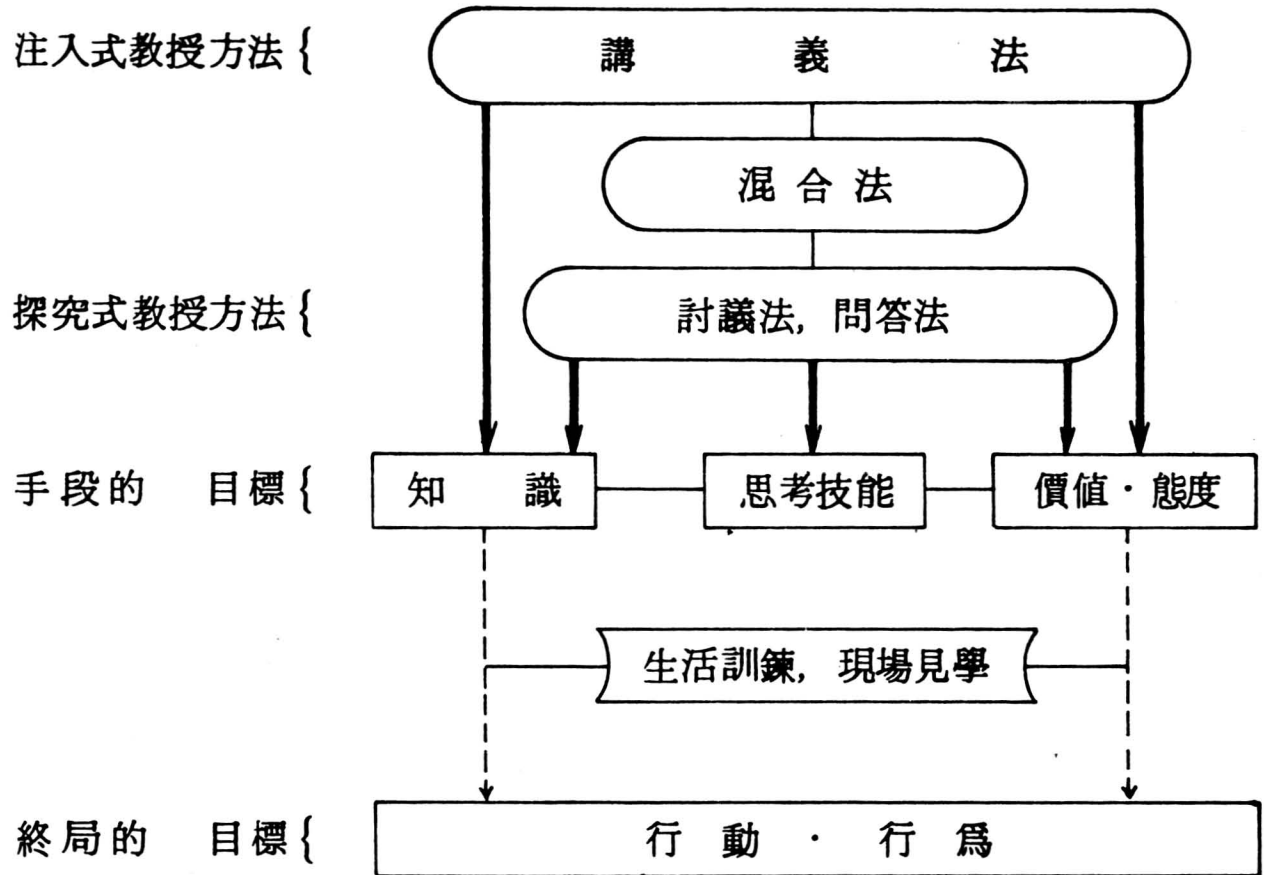
행동 혹은 행위는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목표이다. 행동과 행위는 의미상 구별되지 않은 채 혼동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행동은 모든 신체적 동작을 말한다면 행위는 목적을 향하여 定向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안보교육을 통하여 기대하는 행동이나 행위는 앞에서 지적한바 지식, 사고기능, 가치와 태도에 위배되지 않고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식, 사고기능, 가치·태도 등을 手段으로 하여 終局的으로 기대되는 모든 행동, 행위를 말한다.

지금까지 지적한바 지식, 사고기능, 가치·태도, 행동·행위로 표시되는 통일안보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방법은 모든 다른 교육에서와 마찬가지로 注入式 方法과 探究式 方法이다. 그리고 각 방법이 속하는 技法은 다양하게 지적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통일안보교육현장의 실정을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는 기법은 강의법, 토의법, 문답법 그리고 동 기법을 혼용하는 혼합법이다. 통일안보교육이 시행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통일안보교육 교수방법모형은 다음과 같다.

다음표에서 제시된바 교수방법모형에서 사각형 안에 표시된 것은 통일안보교육의 목표이고 타원안에 표시된 것은 그러한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한 교수기법이다. 지식, 가치·태도의 수단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입식 교수방법에 속하는 강의법의 교수기법과 탐구식 교수방법에 속하는 토의법과 문답법의 기법이 활용된다. 그

統一安保教育 教授方法模型



러나 사고기능을 위해서는 탐구식 교수방법에 속하는 토의법과 문답법의 기법만이 연결된다. 지식, 사고기능, 가치·태도의 수단적인 목표는 궁극적으로는 종국적 목표인 행동·행위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갖는다. 그 연결이 점선인 것은 가능성을 높여 주는 것이지 반드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직접적인 생활훈련이나 현장견학이 그 가능성을 더 한층 높여 줄 수 있다.

各 教授技法別 正當化와 理論的 根據는 다음 章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 나. 教授技法의 理論的 根據

### (1) 講 義 法

강의법은 주입식 교수방법에 속하는 가장 대표적 교수기법이다. 통일안보교육에서 강의법을 활용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서 재언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정도이다. 현재 강의법을 국민계도활동을 위한 단 하나의 교수기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지적하는 것으로 족할지도 모른다. 수백명의 이질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단시간내에(대부분의 경우 1~2시간) 피교육자의 흥미나 동기를 유발시키기 힘들 수도 있는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추진할 경우, 그 준비나 실제 여건에서 강의법은 거의 유일하게 활용 가능한 교수기법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강의법은 강사의 구두에 의한 지식과 정보로 구성되는 메시지의 전달이고 수강자가 그것을 어떻게 학습하느냐에 따라 교육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할 때 강의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제까지 창안되고 검증된 학습이론들을 고찰하기로 하자.

제일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이 광범한 刺戟·反應 聯想主義 (Stimulus - Response Associationism)이다. 파블로프(Pavlov)로 시작되는 古典的 條件化(Classical Conditioning), 손다이크(Thorndike)에 의하여 개발된 效果의 法則(Law of Effect), 練習의 法則(Law of Exercise) 그리고 準備의 法則(Law of Readiness)이 이에 해당된다. 또 스키너(Skinner)의 作動的 條件化(Operant Conditioning)도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은 이론에 따라 강의법의 성과를 생각하면 우선 강의하는 것 자체를 수강자에게 자극을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효과적인 자극을 줌으로써 자극과 반응과의 연결, 즉 조건화를 이룩하는 것이다. 수강자의 반응에 민감하여야겠고 항상 강화시키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겠다.

상기한바 자극·반응 연상주의에 관한 고전적 학습이론들이 강의법의 효과를 높이는 기초이론이 될 수 있으나 좀더 직접적으로 강의법과 연결되는 이론은 최근에 주로 가네(Gagné)에 의하여 발전된 情報處理理論(Information Processing Theory)이다. 이 이론에서는 학습의 현상을 컴퓨터의 작업과 유사한 점으로 보고 정보를 투입하여 산출을 얻는 변형과정으로 보는 점이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의 학습자가 학습사태에 놓여 있을 때 그의 눈, 귀, 코 그외 다른 감각으로 오는 신체적 자극이 신경적으로 통신의 의미나 내용으로 변형되어 이 내용을 신경계내에서 또 다른 변형과정을 거쳐 기억되었다가 나중에 새로이 재생된다고 본다.

이 이론에 따라 강의를 통한 학습과정을 설명하면 수강자가 강사로부터 주어지는 언어적 자극은 수강자의 感受器管에 영향을 주어 감각기록처를 거쳐 신경계에 들어간다. 정보가 감각기록처에 기록될 때는 매우 짧은 순간인데 이때는 자극형태가 그대로 전달된다. 다음 정보가 單期記憶庫(Short-Term Memory)로 들어가면 이 정보가 개념적 형태로 다시 記號化 한다. 단기기억고에서 비교적 간략한 형태로 머물다가 다시 長期記憶庫로 들어가

게된다 그래서 훗날의 再生을 위하여 거기에 저장된다고 한다.

강의시에 강사가 제일 유념하여야 할 것은 어떻게 자기가 전달하는 정보가 수강자들에게 오래 기억되느냐 하는 것이다. 즉 그의 정보가 효과적으로 기호화되고 수강자의 장기기억고속에 체재하다가 재생되어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제까지 밝혀진 바로는 자극이 어떤 방식으로든 뭉뚱그려질 때, 기존의 학습된 개념류에 속할 때, 또 원리로서 단순화될 때 더욱 잘 기억된다고 한다. 따라서 강사는 강의내용을 構造化시킨 후 수강자의 先修學習의 개념을 비롯한 지적 배경을 고려한 후 나선형 식으로 강의를 할 때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와 함께 강사로서 특히 수강자들의 가치·태도를 중심으로 하는 정의적 영역의 변화를 바랄 때는 一致理論(Consistency Theory)이나 均衡理論(Balance Theory) 등의 태도변화이론에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동시에 자기 자신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의 메시지 提示者(Source)며 동시에 模型으로서 신뢰감을 주고 매력이 있어야 하며 논리성이 있으면서도 열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여야겠다. 다시 말하면 강사로서 갖추어야 할 것은 좋은 강의 내용뿐 아니라 강사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도 포함된다.

## (2) 討議法과 問答法

토의법과 문답법은 공히 탐구식 교수방법에 속하는 교수기법이다. 통일안보교육에서 토의법과 문답법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토의법의 선정이유는 현재 널리 활용되고 있는 강의법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다. 현행 국민제도활동의 성과에 대하여 설득력있는 근거자료가 거의 제시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분히 강의법 자체가 지닌 문제성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도 있다. 강사가 수강자들의 관심이나 흥미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부 홍보활동과 유사한 주입활동을 펼 때 그것이 얼마나 설득력을 지닐 수 있을 것인지? 경우에 따라서는 거부반응과 역기능을 발휘할 가능성은 없을 것인지?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행동방향이 한 두 사람의 의사가 아닌 집단의사에 따라, 또 토의를 통하여 강압적 요구가 아닌 대화와 설득에서 이루어질 때 국민제도활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다.

문답법은 그것 자체만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교수기법이라기 보다는 강의법과 토의법을 보완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왜냐하면 다인수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제도활동의 경우 처음부터 순수한 문답법만을 활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강의 도중 수강자들의 관심이나 주의력이 해이하여질 때 또 토의법을 활용하는 도중 교수자의 몇개의 효과적인 질문이 토의의 흐름을 제패도에 올려 놓기도 하고 침체된 분위기에 활기도 불어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토의법과 문답법은 학습자 중심의 기법이며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충분한 사고의 기회를 줌으로써 학습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결론을 도출하게 한다.(인지적 기억질문에 따른 문답법은 제외) 이와 같은 탐구식 방법에 속하는 기법에서는 가장 강조하여야 할 것이 탐구의 과정이다. 이것은 앞에서 다룬 주입식 방법에서 결

과를 강조하는 것과는 반대된다. 토의법과 문답법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하여 그 배경을 이루는 학습이론들을 고찰하기로 하자.

탐구식 방법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학습이론은 게스탈트 피일드 心理學 (Gestalt - Field Psychology)이다. 이 심리학에 의하면 학습은 학습자가 문제사태에 대한 洞察 (Insight)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즉 학습자가 새로운 통찰을 획득하거나 전에 가졌던 통찰을 수정하여가는 과정인데 그것은 聯想主義에서처럼 기계적이거나 결정론적이 아니다. 개인적인 통찰의 발달은 한 문제에 대한 느낌을 획득하는 것이며 한 사태를 바라봄으로써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다. 학습의 초점은 연상주의자들이 외적 행동에 둠에 反하여 이 피일드 심리학에서는 깨달음에 둔다. 깨달음은 아이디어를 파악하였다는 것을 말하며 이것이 즉 탐구의 과정에서 설정되는 假說과 이에 대한 檢査이다.

이 이론에 따라 토의와 문답을 통한 학습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토의를 한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집단사고와 의견교환을 거쳐 해결 방안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잠정적 해결방안 즉 洞察을 얻어야 하고 다음은 그 통찰, 즉 가설을 연역적 귀납적 사고과정을 거쳐 입증하여야 한다. 토의과정은 바로 토의참여자들이 論證의 正當化에 관한 興否를 결정짓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문답을 하는 것은 탐구를 촉진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학습자들이 탐구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거나 입증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오류를 범할 때 교수자의 질문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거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게 만들어 준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질문에 의하여 洞察을 갖게하여 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논증의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論理的 誤謬를 범하고 결론을 내리려 할 때 그 잘못을 깨닫게 하여 준다.

통일안보교육에서 토의법과 문답법을 활용할 때 교수자가 유념하여야 할 사항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고 친절한 안내자며 분위기의 조성자라는 것이다. 학습자들이 문제점에 봉착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답변을 주어서는 안되고 해결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에게 향하는 질문의 방향을 현명하게 바꿀 수 있어야 하고 탐구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학습자들에게 칭찬이나 그의 보상을 주는 여유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수자로서 특히 학습자들의 정의적 영역의 변화를 의도할 때는 토의하고 문답하는 내용뿐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중요시하는 能動的 參與理論(Active Participation Theory)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겠다. 토의하고 문답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어떤 입장이나 견해에 대하여 대중앞에서 誓約을 하게 되고 또 집단의 가치관이나 규범이 눈앞에서 형성되고 변화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그 구성원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정의적 영역은 일방적으로 受講하는 때보다 더 많은 변화를 가질 수 있다.

**(3) 混 合 法**

혼합법은 상기 3 교수기법을 혼합한 것으로서 주로 강의법과 토의법을 혼합한 것과 강의법과 문답법을 혼합한 것으로 양분된다. 또 양 혼합기법이 몇 개의 형태로 세분화되기도 한다.

혼합법의 선정이유는 실제 교육의 현장에서 어느 한 교수기법의 활용으로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경우에 나타난다. 또 교수현장에서 이와 같은 혼합법의 활용으로 분위기를 쇄신시키고 교육의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혼합법의 심리적 배경은 앞의 각 기법에 대한 내용에 준하며 여기에서는 생략하려 한다.

**3. 統一安保教育 教授技法의 活用方案****가. 講 義 法****(1) 意味와 活用上 問題點**

이 교수기법은 강사의 講話에 주로 의존하는 것으로 모든 교수기법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 동시에 그 활용 범위가 가장 넓다. 문헌과 자료의 해독이나 공급이 어려웠던 시대에는 이 기법이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오늘날에도 이 기법은 학교교육뿐 아니라 많은 성인교육에서 가장 대표적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통일안보교육 전문요원이 실시하고 있는 국민계도활동의 경우에도,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기법이 거의 유일하게 활용되고 있다.

최근 강의식 교수기법에 대한 비판의 소리는 매우 높다. 가장 큰 비판은 그 효과와 관련되는 것이다. 우선 강의법의 경우 피교육자들을 수동적 위치에 두기 때문에 지루하게 만들고, 학습의욕을 고취하지 못하고, 따라서 학습자들이 문제해결력을 중심으로한 知的능력의 신장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 이와 함께 강의자가 단시간내에 학습자의 수용능력을 무시한 채 지나칠 정도의 교육내용을 注入하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교육자가 교육내용을 소화하지 못하며 또 그 소화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채 강의를 진행될 경우가 많다고 지적된다.

강의법의 비효율성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적 근거자료를 보기로 하자. 한 실험연구에서 한 유명한 학자가 청중들에게 관심을 끌만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였다. 강의를 시작한지 15분이 지나니까 청중의 10%는 주의력이 산만해졌다. 18분이 경과하자 청중의 3분의 1과 강단위 초청객들의 10%가 안달을 하기 시작하였다. 35분이 지나니까 누구나 주의력이 산만하여졌고, 45분이 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달보다는 非夢似夢 상태가 되었다. 47분이 경과하니까 취침 상태에 빠지는 수강자가 적지 않았다. 강의를 끝난 뒤 24시간이 경과한 후 수강내용에 대한 학습정도를 검사하니까 수강자들은 중요하지 않은 내용 약간만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상기한 바 실험결과는 하나의 예화적 사례에 불과하지만 그외의 여러 연구에서도 강의법에 의하여 전달된 정보의 약 80%는 8주내에 망각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처럼 강의법은 그 효율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단점만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점 또한 지니고 있다. 우선 많은 수강자를 대상으로 특별한 준비나 조건 없이도 강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이다. 그리고 강의과정에서 강사의 화술에 따라 수강자들의 흥미나 동기를 유발시킬 수도 있고, 또 수강자가 이해하는데 곤란을 느끼는 점이 파악될 때에는 반복하여 설명할 수도 있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

강의법의 장단점을 고찰하였지만 현재 동 교수기법이 국민제도 활동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 크므로, 강의법 자체의 개선을 위한 제반사항을 고찰하기로 하자.

## (2) 活用條件

강의법 자체는 교수기법으로서 그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강의식 교수기법만이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다른 기법은 거의 활용할 수 없는 조건도 있다. 여기에서는 강의식 기법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조건을 지적하기로 한다.

첫째, 통일안보교육의 교육목표가 피교육자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포함하는 지적능력이나 가치관, 태도보다는 특히 정보를 전달하는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기법이 효과적이다. 특히 피교육자가 교육내용에 관하여 평소에 접하기 힘들거나 광범한 지식을 직접 습득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때가 그렇다. 공

산권에 관한 정보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피교육자들의 수가 많으며(약 200명이상) 그들의 知的水準이나 先修학습요인을 분석할 시간이 없거나 불가능할 때 이 기법이 활용될 수 있다. 물론 이와같은 여건은 비교육적 여건이고 그것 자체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제도활동의 경우 이와같은 여건하에서 교육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는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이론상으로 더 낫다고 생각되는 교수기법일지라도 그 활용 자체가 실패할 위험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강의법이 활용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된다.

### (3) 活用節次와 活用上 留意點

강의식기법의 활용절차는 물론 뒤에 오는 기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다음과 같은 일반적 5 단계 수업과정 즉 계획, 진단, 지도, 발전, 평가의 단계를 따라서 전개된다.

[ 계획단계 ]는 교수자가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으로 교수과제를 분석하고 목표를 밝히고 교수내용을 세분화하는 단계이다. [ 진단단계 ]는 피교수자가 해당 학습과제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알아보는 단계이며, [ 지도단계 ]는 실제로 교수를 진행하는 것이다. [ 발전단계 ]는 피교수자의 학습성취도를 평가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심화, 보충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단계이다. [ 평가단계 ]는 수업결과를 평가하는 단계이다.

이와같은 5 단계에 따라 강의식 교수법을 활용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계획 및 진단단계〕

국민제도활동을 위하여 전문요원이 계획 및 진단단계에서 하여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부처에 의한 시달에 의하여 과목명이 정해지고 또 기본내용이 정해지면, 전문요원은 동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기에 앞서서 과제분석 (Task Analysis)을 하여야 한다. 그것은 교수내용의 체계성을 밝히고 구조를 찾으려는 시도이다. 그것은 기초적인 지식을 제일 밑에 놓고 높은 수준의 지식을 위에 놓은 피라밋형 도표로 표시하여도 되고 옆으로 개념, 사실, 일반화의 순으로 정렬하여도 된다.

둘째, 목표에 대한 상세화작업을 하여야 한다. 막연하게 국민제도 활동의 성과를 기대하는 자세를 지양하고 1-2시간의 제도활동을 통하여 기대하는 성과를 知的, 情意的 領域으로 나누어 行動用語 (Behavioral Terms)로 분류한다. 다음, 앞의 국민정신교육 모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단적 목표와 종국적 목표를 분류한 후 상호간의 관련성을 고찰한다.

셋째, 강의에 들어가기전에 受講者에 대한 조사가 가능할 경우에는 그들의 관심사항, 지적수준을 밝혀내어 강의 내용을 받아들이기 위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있는가를 파악하여야 한다. 다인수의 이질적 집단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어떤 수준에서 가장 적절한 강의를 이루어질 수 있는가도 결정하여야 한다.

## 〔지도단계〕

강의식 기법의 활용시 지도단계는 보통 도입, 전개, 정리의 과

정으로 나누어 진다.

도입의 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것은,

첫째, 강의에서 다룰 주제들을 간결히 설명하고 그 주제들의 순서에 대해서도 간단히 밝혀야 한다. 강의에서 다루어질 주제에 대해서는 무원칙하게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의문형으로 제시함으로써 본 강의를 듣기 전에 관심과 동기가 유발되어야 하고 또 강의를 다 들은 후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수강자 자신들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강의과정에 수강자가 어떤 식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밝힌다. 예를 들면 본 강의를 끝난 후 10여분 동안에 어떤 형태의 질문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이것이 수강자의 주의력을 증가시킨다.

전개의 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것은,

첫째, 전개과정을 도입과정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강의도중 범하기 쉬운 잘못은 도입단계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다루거나 도입에서 정하여 놓은 경계를 뛰어 넘는 것이다. 이것은 강의자가 수강자들이 주의하고 있지 않은 주제로 별안간 뛰어들어가기 때문에 일어난다. 한 주제에 대한 과도한 탈선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강의자가 어떤 내용에 대하여 너무 관심이 깊이 빠져들어 감으로써 생긴다. 이를 막기 위해서 내용 윤곽과 시간배정을 매 주제별로 할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내용 설명을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강의자는 수강자들의 요구에 민감하여야 하며 구체적 예를 들어 설명하여야 한다.

수강자들의 수준과 배경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2~3개의 다양한 예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핵심 아이디어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잘 풀어서 해설하여야 한다.

세째, 강의의 步調를 변화시켜야 한다. 한 강의자의 강의를 똑같은 보조대로 20분 정도 나아가면 수강자들의 집중력은 급격히 떨어지므로 보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유능한 강의자는 한 주제로부터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서 수강자들에게 기분전환과 휴식 시간을 준다. 이러한 변화는 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때가 좋다. 중간에 간단한 유우머나 간단한 시범 등은 기분을 전환시키고 활력을 불어 넣는다. 그러나 그 시간이 길거나 주제와 별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오히려 강의를 그릇치는 수가 있다.

정리의 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것은

첫째, 정리의 단계에서는 도입의 단계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만약 강의를 일련의 문제 제기로 시작하였다면 정리는 그에 대해서 빼놓지 말고 해답을 제시하여야 한다.

둘째, 상기한 바, 요약하는 일 외에 정리에서는 수강자들이 앞으로의 한단계 더 높은 사고를 위한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앞으로 관련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할 만한 질문을 하고 적절한 자료에 대한 언급을 함으로써 피교육자의 未來學習을 촉진한다.

지금까지 도입, 전개, 정리의 과정에서의 유의점을 지적하였다. 그 과정은 강의를 통하여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알려주고(도



입), 말해주고(전개), 그리고 무엇을 말했다는 것을 종합하여 주는 것(정리)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과정에서 훌륭한 강의자가 수강자들의 동기, 관심, 열정 등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강의자는 무미건조하고 활력이 없는 내용의 전달만으로 끝나기도 한다. 여기에 강의자의 신념, 특성(Trait) 그리고 경험 등의 요인들이 작용하고 그 차이점을 극복하기는 힘들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기한바 3과정을 통하여 공통으로 유의하여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 ① 음성의 구사를 적절히 하는 것이다. 물론 선천적으로 더 부드럽고 무게있는 음성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음성의 억양, 고저, 보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주요주제나 핵심응답은 변화를 주어 강조하여야 한다.
- ② 신체의 적절한 동작이다. 강의중 몸은 연단 뒤에 두고 눈을 한 곳에 정지시키는 것으로 강의를 일관하는 사람은 대개 수강자들을 지루하게 만든다. 또 어느 한 곳에 시선을 집중한 채 강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유능한 강의자는 모든 수강자와 눈을 교환한다. 처음에는 여러 곳에 있는 몇몇 친근한 얼굴과 시작하고 그것을 전부에게로 확대한다. 가끔가다 서있는 장소를 옮기는 것도 좋다.

#### [ 발전 및 평가단계 ]

1~2시간 단위로 수업을 추진하는 국민계도활동의 경우 形成評價와 補充深化學習은 부적합하기 때문에 발전단계에 해당되는 일

은 별로 없다. 총괄평가의 경우에는 筆答法이나 面答法에 의하여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실제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가능한 방법은 강의자가 수강자의 반응에 의하여 주관적 평가를 할 수 밖에 없고 어느 정도 객관성을 찾는다면 몇몇 수강자를 대상으로 한 질문에 의하여 평가가 가능하다.

평가과정에서 특히 유의할 점은 수강자들이 강의를 들은 후 국민정신교육방법모형에서 수단적 목표로 지적한 지식, 가치관, 태도 등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고 동시에 이와 같은 수단적 목표가 종국적 목표인 행위와의 연결 가능성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 (4) 授業指導 例案

수업지도 예안은 앞에서 지적한 5단계 수업과정 중에서 지도 단계를 예시하기 위한 것이다. 선정내용은 최근 국민제도활동을 위한 강의 주제로 자주 선택된바 있는 「북한실정」이다. 본 수업지도안은 국토통일원 「'83년도 통일안보교육 실시지침」부록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간단한 수업전개 계획과 이에 따른 구체적 수업지도 예안을 제시하려 한다.

[ 수업전개 계획 ]

과 정	주 요 수 업 활 동	시 간 (100분)
도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실정 전반, 북한동포들의 생활실태, 북한의 민족이질화현상, 북한 공산체제의 장래 등에 관한</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padding: 5px; margin: 10px auto; width: fit-content;">관심 및 탐구의욕 고양</div>	10 분
전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공산체제는 타공산체제와 크게 구별되는 특수한 것이라는 것</li> <li>○ 북한주민의 생활은 경제체제와 구조적 모순으로 궁핍할 수 밖에 없다는 것</li> <li>○ 남북분단 상황으로 민족이질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li> <li>○ 남북관계의 경직화가 예상되므로 체제의 우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 등에 관하여</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padding: 5px; margin: 10px auto; width: fit-content;">증거사실에 입각한 해설</div>	70 분
정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입의 단계에서 제기되었던 4문제 영역에 대한</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padding: 5px; margin: 10px auto; width: fit-content;">문제별 요약정리 및 결론도출</div>	20 분

[ 수업지도안 예시 ]

과정	주요내용	수업활동	유의점
도입	<p>◎서론 및 문제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실정 전반에 관한 탐구의욕을 높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공산체제의 가장 큰 특성은 어떤 것일까?</li> <li>- 북한공산체제는 다른 공산체제와 유사할까 아니면 상이할까?</li> </ul> </li> <li>○ 북한동포들의 생활실태에 대한 호기심을 높이고 특히 우리의 북한인식에 오류가 있는가를 재확인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주민의 의식주생활은 어떠한가?</li> <li>- 북한주민의 사생활은 어느 정도 보장되는가?</li> </ul> </li> <li>○ 북한의 민족이질화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부각시킨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제도는 유지되고 있을까?</li> <li>- 우리의 전통문화는 어떻게 보존되고 있을까?</li> </ul> </li> </ul>	<p>*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 실태가 실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을 피 교육자가 지니고 있음을 유념하고 지도하여야 함.</p>

과정	주요내용	수업활동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주민들, 특히 전후세대의 의식구조는 우리와 어느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나?</li> <li>- 북한공산체제의 장래를 거시적으로 투시하려는 자세를 기르고 앞으로 우리가 당면하게 될 과제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게 한다.</li> <li>- 김일성의 사후에 벌어질 사태는 어떤 것일까?</li> <li>- 우리 체제의 우위성을 지속시키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li> </ul>	
전개	<p>◎북한공산체제의 특징</p> <p>(1) 북한공산체제의 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공산체제는 타공산체제와도 크게 구별될 수 있는 특수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한다.</li> <li>- 북한공산체제는 사상의 획일화, 권력의 경직화, 경제의 집권화, 사회의 군사화, 사회의 밀폐화 등의 특수성을 지녔으며 북한의 경</li> </ul>	<p>* 타공산체제와 구체적 예를 들어 비교 설명할 것.</p>

과정	주요내용	수업 활동	유의점
	<p>(2) 타공산체제와의 차이</p> <p>◎북한주민의 생활실태</p> <p>(1) 주민 생활의 궁핍</p> <p>(2) 비인간적 생활</p>	<p>우 왜 이와 같은 특징이 나타났는가를 설명한다.</p> <p>- 북한공산체제의 역사적 배경의 날조, 폭력혁명 노선의 고수, 권력세습체제 구축 등은 다른 어떤 공산체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현상임을 알게 한다.</p> <p>○ 북한주민의 생활은 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계획실패, 그리고 군사경제 우선 등의 이유로 궁핍할 수 밖에 없음을 주지시킨다.</p> <p>- 북한공산체제하에서 중앙의 획일적 계획과 지령, 군사비 부담, 외채압력, 경제계획의 실패에다 물량적 빈곤이 겹쳐 빈곤한 의식주 생활을 상세히 설명한다.</p> <p>- 개인은 각종 조직에 예속되어 있는데다 직업선택 및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p>	<p>* 자유국가의 생활과 대조하여 설명할 것이 요청됨.</p> <p>* 북한주민의 생활을 자신의 생활과 구체적으로 비교하게 한다.</p>

과정	주요내용	수업 활동	유의점
	<p>◎ 민족이질화현상</p> <p>(1) 전통적 가족제도의 파괴</p> <p>(2) 전통문화의 말살</p> <p>(3) 의식구조의 변질</p> <p>◎ 북한공산집단의 전망과 우리</p>	<p>어 있어 근본적인 기본권이 박탈되어 있음을 알게 한다.</p> <p>○ 남북분단 상황으로 인하여 민족이질화 현상이 여러 면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주지시킨다.</p> <p>- 가정을 혁명의 실천장으로 만듦으로써 종래 가정의 혈연적 유대를 끊고 있음을 알게 하며 동시에 탁아소, 유치원에 수용을 의무화시켰다는 것을 알게 한다.</p> <p>- 관혼상제, 민속, 언어를 크게 변화시켜 전통문화를 변질시켰음을 설명한다.</p> <p>- 사람들이 생존을 위하여 의식구조를 이중화하고 각박한 인간성을 지니게 되었음을 설명한다.</p> <p>○ 앞으로의 북한체제 변화의 가능성을 짐작하게 하고 이에 대비하여 우리 체제의 우</p>	

과정	주요내용	수업 활동	유의점
	<p>의 과제</p> <p>(1) 북한 체제의 전망</p> <p>(2) 우리의 과제</p>	<p>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길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일성의 사후, 김정일의 세습체제를 유지하는 경우 남북관계가 경직화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li> <li>- 집단지도체제가 등장할 경우 사회적 지지기반이 미약하므로 인하여 남북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짐작하게 한다.</li> <li>- 우리 체제의 우위성과 취약성을 북한체제와 비교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자신감을 넣어준다.</li> <li>- 북한체제와의 경쟁과 대립의 자세도 필요하나 근본적으로는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주지시킨다.</li> </ul>	



과정	주요내용	수업활동	유의점
정리	◎요약과 결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입의 단계에서 제기하였던 4개문제 영역에 대한 요약 을 한후 강조점을 지적한다.</li> <li>- 북한공산체제는 권력의 경 직화, 사회의 밀폐화, 세습 체제의 구축 등 타공산체 제와도 판이한 특성을 지 니고 있다.</li> <li>- 북한주민은 경제체제의 구 조적 모순과 군사경제 우 선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 고 있고, 제 기본권이 유 린되므로 인한 비인간적 생 활을 영위하고 있다.</li> <li>- 북한에서는 가정을 중심으 로 한 혈연의 紐帶無視, 전통문화의 抹殺, 의식구조 의 이중화로 민족이질화현 상을 촉진시키고 있다.</li> <li>- 김일성의 死後, 체제적 혼란 이 必至할 것이므로 우리 내 부의 체제적 우위성을 강화 하고 취약점을 보완할 경우 통일의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다.</li> </ul>	

## 나. 討 議 法

### (1) 의미와 활용상 문제점

이 교수기법은 교수자의 인도에 의하여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집단사고와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이나 결론을 도출케 하는 探究式 방법의 제일 대표적인 기법이다. 이 기법을 통하여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의견을 발표하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알아내고, 감정을 표출시키고, 견해를 명료하게 하며, 사람들의 의견을 재평가하고, 수용과 소속의 감정을 습득한다.

이 기법은 注入式 방법에서의 講義法처럼 오랜 역사를 지닌 것으로 역사의 변천 특히, 민주주의의 발전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민주적 정치 발전과 함께 집단속에서의 중요한 결정이 한 두 사람의 의사가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의 대화와 논의를 거쳐 이루어짐으로써 이 기법의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이 토의법은 금세기에 들어오면서 종래의 주입식 방법의 代案으로 등장한 발견식, 문제해결식, 탐구식 방법의 대표적 유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최근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육현장에서도 이 새로운 교수기법의 활용이 적극 권장되고 있다. 교실개혁운동은 이와 보조를 같이 하고 있는 한 예이다. 성인교육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바 내무부 산하 공무원교육원에서 198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수업효율화운동에서 강조하는 참여식 교육의 확대가 그 대표적 예이다.

토의법의 장단점은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다. 討議法의 배경을 이루는 발견의 심리과정에 대해서 지적능력의 증가, 외적 보상으로

로부터 內的 補償으로의 변화, 發見性的의 학습, 기억의 유지 등이 지적되기도 한다. 또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여 수업효과에 관한 한 모든 다른 조건이 같다면, 소수 집단이 다수 집단의 대상보다, 강의법보다는 토의법이, 또 교수자 주장의 토의법보다는 학습자 주도의 토의법이 수업 결과의 파악, 문제의 해결 그리고 태도 변화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학습자 중심의 토의법은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가장 강력한 교수기법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그 기법 자체는 적지않은 문제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 토의법의 기초를 이루는 발견이나 문제해결이 반드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며, 발전적인 입장에서 교과내용을 가르치는데 불필요·부적절하며, 시간을 너무 낭비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토의법의 단점을 살펴보면, 교수자 입장에서 많은 준비를 하여야 하고, 또 이것이 잘못 운영될 경우에는 토의를 이끌어가는 교수자에게 질문을 하게 되어 강의식과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 또 몇몇 학습자들이 토의현장을 독점하고 어떤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어가 교수자는 마지못해 끌려가게 되며, 토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습자는 실망과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장단점을 지니고 있는 토의법은 그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교수자가 주도하는 토의가 있는가 하면 학습자들이 주장하는 토의도 있다. 또 좀더 전문적으로는 主題熟達討議 (Subject Mastery), 論爭點定向討議 (Issue Ori-

ented), 그리고 問題解決討議( Problem Solving )로 분류될 경우도 있다. 그 類型上으로 보면 대립토의( Debate ), 패널토의( Panel ), 포럼토의( Forum ), 심포지움( Symposium )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토의법의 유형들이 다그 나름대로의 장점과 이론상으로는 우수한 면을 지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통일안보교육 국민제도활동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극복하여야 할 문제점이 적지 않다. 현 여건에서의 활용 가능성과 방안은 뒤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 (2) 活用조건

통일안보교육에서 이 교수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제도활동에서 그 기대하는 성과가 일방적으로 어떤 내용을 주지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 등 情意的 변화를 기대할 경우와 문제해결을 위한 토의의 기능 등 지적 능력의 신장이 특히 강조될 때 이 교수기법이 특히 필요하게 된다. 강의법 등에서 주입되는 의견을 수용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과의 합의에 의하여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또 집단의 規範이 형성되는 것을 볼 때 태도나 가치관의 변화가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또 지적기능의 경우에도 충분한 토의 과정에서 사고의 능력이 신장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둘째, 피교육자의 수가 비교적 적어야 하고 토의를 위한 준비기간이 있어야 한다. 토의를 위하여 가장 적절한 인원수는 10~20명 정도로 밝혀지고 있다. 실제로 국민제도활동의 경우 이

와 같은 적정 수준의 피교육자들을 갖는 경우는 극히 희소하다. 따라서 분임토의 방식이 운용될 수 있어야 한다. 패널토의나 포럼토의의 경우에는 비교적 피교육자들의 수와는 관계가 적다. 왜냐하면 패널토의의 경우 소수의 토의자(4~8명정도)가 나와서 토의하는 것을 참관하면 되고, 포럼토의의 경우, 한 사람이나 혹은 몇 사람이 전체 앞에서 발표하고 청중속에서 몇 사람이 나와서 토의를 벌이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토의자의 대부분의 피교육자들이 갖는 경험은 수강하는 것과 실제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토의법의 장점은 절감된다고 할 수 있다. 또 적어도 토의자들은 미리 토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도활동의 경우처럼 전문요원이 별안간 1~2시간내에 처음 만나는 대상에게 통일안보교육을 실시하려 할 경우 토의법의 사용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 (3) 활용절차와 활용상 주의점

토의법에서 기대하는 성과는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떤 주제 혹은 내용에 관하여 여러 사람과의 충분한 토의를 통하여 심층적 이해를 하려는 것과 논쟁점이나 문제를 토의과정에서 해결하거나 결정하려는 것이다.

국민제도활동에 토의법을 활용할 경우, 그 대상이 50여명 이하일 때는 교수자 주도의 내용심화나 문제해결을 위한 토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상수가 100여명을 상회할 때는 분단으로 나누든가 아니면 패널토의나 포럼토의의 경우처럼 몇몇 사람이 주로 토의활동을 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참관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한

다. 물론 이런 때는 교수자의 역할도 반감된다. 구체적 활동단계를 보면,

[ 계획 및 진단단계 ]

이 단계에서 교수자인 전문요원이 특히 유의할 점은,

첫째, 토의의 주제에 대한 배경을 조사함으로써 준비태세를 취하고, 토의할 조항의 윤곽을 작성한다. 토의의 목적과 방법을 분명히 생각하여야 하고 토의의 방향도 정하여 놓는다.

둘째, 패널토의나 포럼토의의 경우에는 교수자가 일단 토의의 문제를 정한 후, 발표나 토의에 참여할 사람을 정한다. 패널토의의 경우 토의자 약 6~8명 정도에게 미리 발표내용을 알려주고豫備會晤를 가질 수 있으면 더욱 좋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고 준비없이 토의를 이끌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토의를 이끌어가기 위하여 미리 문제를 정해놓고 몇 사람의 토의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가 하는 원칙을 정하여 놓는다. 포럼토의의 경우에도 패널토의에 준하여 준비하면 될 것이다.

셋째, 학습자들이 토의할 수 있는 기능, 예를 들어 타인의 발표를 듣는 것, 말하는 것, 소수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 합리적 증거를 찾는 것, 집단 결정하기 등의 기능이 있는가를 미리 판정할 수 있으면 좋다.

[ 지도단계 ]

導入의 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것은,

첫째, 교수자는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학습자들에게

제시하고 그들의 동기와 관심을 일깨운다. 학습자들이 문제를 실감있게 인식케하기 위하여 최근의 사건이나 정보 등 주변의 문제로부터 시작하면 좋다. 한마디로 지적하면 학습자들의 知的 호기심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의욕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둘째, 교수자는 패널토의나 포럼토의 등 교수자가 토의과정에 많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의의 문제가 어떤 것이며, 토의에 참여할 사람들이 누구라는 것을 소개한다. 포럼토의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절차를 따라 진행한다.

展開의 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것은,

첫째, 토의의 방향 자체가 흔들리게 해서는 안된다. 主題熟達討議의 경우에는 정해진 주제에 대하여 충분한 토의를 벌이게 하면 된다. 그러나 問題解決討議의 경우에는 토의중 조사되어야 할 가설을 설정하게 하고 演繹的 탐색을 거쳐 가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사실을 토의하게 한다.

둘째, 토의진행을 원만하게 이끌어야 한다. 토의가 잘 진행되지 않을 때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특정인을 지명할 수 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을 토의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거의 토의에 참여하지 않는 자를 알아차린 후 그들에게 질문하고 동의 여부를 물어본다. 주제에서 벗어난 발언은 제외하면서 불분명하거나 논리적 모순점이 발견되면 그것을 지적하고 例證,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세째, 일반적 토의방법이 준수되지 않을 때는 이를 적절히 矯

正하여 준다. 그것은 동의를 얻은 후 발언하고, 다른 사람이 발언하는 중에는 손을 들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발언 기회가 오도록 발언을 짧게 하고, 여러명이 발언하고자 할 때는 발언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고, 다른 사람을 감정적으로 해치는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등이다.

整理의 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것은,

첫째, 교수자 주도의 토의인 경우에는 토의된 바를 요약하고, 토의의 결과로서 결론지워질 수 있는 것과 추가된 증거자료에 따라 입증될 수 있는 것을 분류한다.

둘째, 패널토의나 포럼토의의 경우에는 토의자들의 발표된 내용을 종합하여 합의에 도달한 의견을 종합하고, 이에 관하여 토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마지막 의견을 유도한다.

지금까지 도입, 전개, 정리의 과정에서의 유의점을 고찰하였다. 그 과정은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도입), 그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토의하게 하고(전개), 그 토의된 바를 요약하고 결론내리는 것(정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교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탐구의 정신에 따라 토의를 효과적으로 이끄는 것이다. 토의를 이끄는 과정에서 공통으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 ① 지도 내용상의 차원에서 보면 토의의 결과에서 얻어지는 내용은 단순한 사실적인 지식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방안이나 특수 사실을 종합한 일반화된 법칙 그리고 태도나 가치관이다.



- ② 절차상의 차원에서 보면 토의를 이끄는 과정에서 교수자는 토의자들의 탐구를 위한 중개역할을 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③ 환경상의 차원에서 보면 강의식 기법을 활용할 때 교수자가 일정한 자리에서 권위적 위치를 차지하는가 하면 토의식에서는 교수자가 자유로운 위치를 차지할 수도 있고 학습자들도 교수자에게 일제히 향하는 방향을 바꾸어 자유롭게 마주 앉아 토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좋다.

[ 발전 및 평가단계 ]

토의의 과정을 통하여 문제에 대한 합의된 결론이나 태도를 결정하는 경우, 일정한 목표가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충 심화학습을 위한 발전단계와 평가단계는 큰 의미가 없다. 토의의 과정에서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므로 토의의 결과로서 어떤 결론이나 합의가 이루어졌는가 보다는 토의에 참여하는 능력이나 기능의 습득 정도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그것은 듣는법, 발표하는 법,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법, 거짓이나 감정적 표현을 구별하기, 집단 결정하기 등을 포함한다.

(4) 授業指導 例案

토의법을 활용하는 수업지도 예안의 주제는 「북한의 대남전략 전술과 우리의 대비책」이다. 본 주제는 국민계도활동을 위한 강의 주제로 자주 선정된 것으로 토의를 통하여 효과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본 수업지도안은 국토통일원 1983년도 통일

안보교육 실시지침」부록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수업전개계획과 그에 따른 구체적 수업지도 예안은 다음과 같다.

[ 授業展開計劃 例示 ]

과 제	주 요 수 업 활 동	시 간 (100분)
도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산집단들의 궁극적 목표, 행동기준 그리고 북한공산집단이 취해온 「전한반도의 공산화」전략·전술에 대하여 관심 및 탐구의욕 일으킴.</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교수자 : 문제제기</p>	10 분
전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전략·전술에 대하여 「북한은 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한 불변하는 혁명전략과 상황에 따른 전술적 변화를 가진다」는 가설설정</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교수자 주도 (해설)</p>	70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대혁명역량 강화 추진에 대한</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토 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적 시기가 조성될 때 북한체제가 취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토 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결정적 시기」를 위한 노력에 관한</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토 의</p>	

과 제	주 요 수 업 활 동	시 간 (100분)
정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입단계에서 제기된 공산주의자들의 행동기준과 전략·전술에 대하여 토의한 바를 종합하여 가설검증 및 결론 도출</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교수자 주도 종합 및 질의응답</p>	20 분

[ 授業指導案 例示 ]

과정	토론항목	수 업 활 동	유 의 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산주의의 목표와 행동기준</li> <li>* 교수자 문제제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산집단들의 최종목표에 대한 관심을 일으킨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세계에 존재하는 각 공산집단은 서로 다른 목표를 지니고 있는가? 혹은 공통되는 목표를 지니고 있는가?</li> <li>- 현재 존재하는 공산집단은 최근 그 목표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li> </ul> </li> <li>○ 공산주의자들의 행동기준에 관한 관심을 일으킨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독교반공십자군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항상 일관성있게</li> </ul> </li> </ul>	<p>* 전 세계적 공산주의운동에서부터 북한으로 관심을 집중시킨다.</p>

과정	토론항목	수업활동	유의점
		<p>세계적화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의 행동은 항상 예측할 수 있고 따라서 믿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말에 대한 반응을 알아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용공단체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세계의 반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타협의 길을 모색하자고 한다. 이 말에 대한 반응을 알아본다.</li> <li>○ 북한공산집단이 취해온 「전한반도의 공산화」전략·전술에 대한 관심을 야기시킨다.</li> <li>-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전략·전술은 큰 변화를 맞고 있는가?</li> <li>-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전략·전술은 앞으로 방향 전환을 나타낼 것인가?</li> </ul>	
전개	* 가설의 설정과 검증	○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전략·전술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게	

과정	토론항목	수업활동	유의점
	<p>○ 북한공산집단의 통일개념</p> <p>○ 「3대혁명역량」강화</p>	<p>한다.</p> <p>* 가설: 북한은 전 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한 불변하는 혁명전략을 지녔고 전술은 상황에 따라 변한다.</p> <p>○ 상기한바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와 관련지어 토의를 벌인다.</p> <p>○ 북한공산집단이 바라는 남북통일이 그들이 표방하는 대로 민주통일, 평화통일인가에 대해 토의를 진행한다.</p> <p>- 북한신헌법 - 조선로동당규약</p> <p>○ 전략적 지도과제인 「3대혁명역량강화」가 어떻게 추진되었는가에 대해 토의를 벌인다.</p> <p>- 대남혁명을 지원할 수 있는 북한의 역량을 키우기 위</p>	<p>* 북한이 말하는 통일은 계급혁명에 따른 공산주의식 함락방식에 의한 통일이라는 점을 유의하게 한다.</p>

과정	토론항목	수업 활동	유의점
	<p>○ 직접개입에 대비한 역량강화</p>	<p>하여 계속된 노력—유일권력체제, 명령경제체제, 4대 군사노선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한내부의 혁명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미군철수 선동, 반정부 용공인사들의 반정부 폭력활동 사주</li> <li>- 국제적 혁명역량과의 단결을 위한 노력— 공산국들과의 외교강화, 제 3 세계 접근, 해외 친북 반한인사 지원</li> </ul> <p>○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적 시기가 조성될 때 북한체제가 취할 수 있는 활동에 관한 토의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정책변화에 의한 미군철수 가능성 등</li> </ul> <p>○ 남한 내부에 혁명여건의 조성으로 「반혁명세력」의 공격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북한이 취할 태도 토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의 4.3사건</li> <li>- 여수반란사건 등의 역사적 예와 최근의 예 지적</li> </ul>	

과정	토론항목	수업 활동	유의점
	<p>○ 투쟁의 속도와 방향유지</p>	<p>○ 공산주의 혁명전략에서 소위 「결정적 시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가를 토의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향유지와 간조기</li> <li>- 左傾 맹동주의와 右傾의 기회주의</li> </ul>	<p>* 공산주의 전술은 항상 상황 변화에 따라 교체와 배합을 통하여 위장전술을 편다는 점을 일깨운다.</p>
정리	<p>* 교수자 종합 및 질의응답</p>	<p>○ 도입단계에서 제기된 공산주의자들의 행동기준과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전략·전술에 대하여 토의된 바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린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공산집단은 전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하여 불변하는 혁명전략을 세웠다.</li> <li>- 북한공산집단은 전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사용해온 전술들을 재조립, 재결합할 것이며 원칙에 맞추어 행동할 것이다.</li> <li>- 대한민국이 취할 길은 북한공산집단의 전략전술을 분쇄하려 하기보다는 그것 자체를 포기할 여건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li> </ul>	<p>* 학습자들로 하여금 전술의 변천과정 제 1단계로부터 제 7단계에 거치는 증거사실을 충분히 찾아내게 한다.</p>

## 다. 問 答 法

### (1) 의미와 활용상 문제점

이 교수기법은 앞에서 고찰한 토의법과 함께 암송법(Recitation)을 구성하고 있다. 교수자가 질문을 하고 학습자가 응답하는 비교적 단순한 형태이다. 이 기법은 우리나라의 경우 書堂式 교육에서도 많이 사용하여 왔고, 서양의 경우에는 소크라테스의 對話法(Dialogue) 이래 중요한 교수기법의 하나가 되어 왔다. 이 기법의 가장 큰 장점은 학습자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함으로써 학습자의 창조적 사고의 발달을 돕고 탐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질문의 종류와 질문의 방법과 분위기 조성에 따라 학습자의 의사를 진작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문답법에서 교수자가 제기하는 질문은 다음 4종류로 보통 나누어진다. 그것은 認知的 기억질문(Cognitive-memory Questions), 收斂的 질문(Convergent Questions), 發散的 질문(Divergent Questions) 그리고 評價的 질문(Evaluative Questions)이다.

인지적 기억질문은 가장 낮은 수준의 知的 思考를 거치는 것으로서 탐구식 방법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학습자들이 회상이나 연상에 의하여 사실적 정보나 정의를 재생시킬 것을 요구하는데 끝나는 것이다.

수렴적 질문은 학습자가 응답하기 위하여 사실 혹은 아이디어



를 기억한 후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조직하고 자기의 말로써 설명을 공식화하여야 한다. 설명, 대비, 對照 등이 필요한 인지적 행동이다.

그 예를 들면 “왜 북한공산체제는 사회의 밀폐화를 시도하고 있는가?” “북한공산체제가 지니는 타 공산체제와의 상사성과 상이성은 무엇인가?” 등이다.

발산적 질문은 학습자들이 응답과정에서 더 많은 자유와 독립성을 지니는 것이다. 그말 자체가 의미하듯이 발산적 질문은 다양한 답을 요구하는 것으로 문제사태를 주어 창조적 답변을 요구한다. 예측, 가설, 추론 등이 필요한 인지적 활동이다. 그 예를 들면 “북한의 대남전술이 최근 변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소위 인민민주주의혁명이 끝나고 사회주의혁명단계로 들어가게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사태는 무엇인가?” 등이다.

끝으로 평가적 질문은 가치판단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 질문은 학습자들에게 의사와 지식을 조직하여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방어할 수 있게 만든다. 따라서 이 질문은 正誤의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견해의 표시를 바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 유형을 고찰한 바 문답법이 지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사용하는 질문의 종류와 시기에 있다. 지금까지 활용하여 온 문답법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인지적 기억질문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단순한 기억력만을 요구하고 또 실제로 그와 같은 낮은 수준의 지적능력만을 신장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경

우가 많았다. 또 질문하는 시기도 교수과정이 끝난 후 총괄평가 형식으로 질문이 과하여 지기 때문에 질문의 결과를 피드백(Feedback)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적고, 따라서 학습효과를 크게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앞에서 지적한 바 수렴적 질문이나 발산적 질문을, 특히 발산적 질문을 형성평가의 의미로써 활용하고 동시에 더 높은 수준의 탐구를 위한 썬틀로서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2) 活用조건

통일안보교육의 국민제도활동에서 이 교수기법만으로 수업을 이끄는 것은 적합지 않을 경우가 많다. 오히려 앞에서 지적한 강의법과 토의법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보완 내지 보강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상기 두 기법을 활용하는 도중이나 끝날 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활용되기 위한 적절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답법은 국민제도활동에서 그 기대하는 성과가 내용의 周知나 지적기능의 습득 또 가치관, 태도의 형성에 모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知的인 경우에는 학습자들에게 보충심화학습의 방향을 제시하고, 습득된 지식을 재확인하는데 또 정의적인 경우에는 일단 습득한 가치관이나 태도를 내면화시키거나 변경키 위하여 다른 방향으로 의문점을 제기하는데 도움을 준다.

둘째, 문답법은 교육대상의 先修學習要因이나 피교육자 수에 비교적 영향을 적게 받는다. 피교육자가 비교적 동질적 집단일 때

문답법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강의법이나 토의법처럼 심각하지는 않다. 피교육자의 응답에 따라 질문의 형태와 수준을 즉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대상자의 수에 있어서도 적을수록 좋겠으나 100~200여명까지는 질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300여명이 넘는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문답의 절차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 (3) 활용절차와 활용상 유의점

#### [ 계획 및 진단단계 ]

이 단계에서 교수자가 유의할 점은, 첫째, 문답법을 강의법이나 토의법에 併行하여 사용할 경우 강의나 토의도중 언제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가급적이면 앞에서 지적한 4 유형의 질문이 고르게 포함되면 좋을 것이나 그 선정에는 기준이 마련되어야겠다. 예를 들면, 어떤 입장에 대한 예상되는 결과를 탐색할 때는 질문이 필요하겠으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가설이나 어떤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인지적 기억 질문이 필요하다.

둘째, 앞에 질문의 4 유형중에서 평가적 질문으로 가치판단에 관련되는 문답을 할 경우에는 피교육자에게 던질 질문의 체계를 잡은 후 (Syntax) 어떤 단계에 따라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물론 이때에는 예상되는 답변도 생각해 두어야 한다.

#### [ 지도단계 ]

강의법이나 토의법에 의하여 수업을 이끌면서 문답법을 필요시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 단계에서 특별히 밝힐 것이 없다. 여기에서는 평가적 질문을 통하여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활용하는 法理的 수업모형 (Jurisprudential - Model)의 활용상의 유의점을 지적하기로 한다.

도입의 과정에서 유의할 것은 가치 갈등사태나 문제사태에 대하여 교수자가 충분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이다. 질문을 시작하기 전단계로서 어떤 기사를 읽게 하기도 하고 시청각자료를 시청하게도 하여 문제사태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기초지식을 습득케 하는 것이다.

전개의 과정에서 하여야 할 일은 첫째, 학습자에게 문제를 밝히게 한다. “우리는 ……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우리나라는 ……의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는가?” 등의 질문을 함으로써 학습자가 관련되는 사실을 종합해 본 후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킨다.

둘째, 학습자에게 어떤 입장을 취하게 한다. 앞에서 밝혀진 문제에 대하여 “당신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당신은 그 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지니고 있습니까?” 등의 질문을 통하여 구체적 사태에 대하여 어떤 가치관을 나타낼 기회를 준다.

셋째, 학습자에게 어떤 입장을 탐색케 한다. 학습자가 표시한 견해나 가치관에 대하여 잘 일치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반문한다. 즉 “당신이 택한 가치관은 이런 점에서 틀린다고 생각치 않으니까?” “당신 입장을의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치 않

읍니까?”

네째, 학습자에게 입장을 다듬고 제한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 “당신의 생각은 ……라고 말입니까?” “당신의 생각은 ……게 표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와 같은 질문을 함으로써 앞에서 취한 입장을 바꾸거나 한계를 밝힐 기회를 준다.

끝으로 정리의 과정에서 하여야 할 일은 학습자가 취한 입장의 결과를 마지막으로 검토하게 하는 것이다. “당신이 주장하는 대로 그 문제가 해결될 때 여러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와 같은 질문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입장의 적절성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게 한다.

#### [ 발전 및 평가단계 ]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교수자의 질문에 대하여 어느정도 적절한 답을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평가의 기준은 도입의 과정과 전개 과정의 과정에서 문제를 밝히고 입장을 취할 것을 요구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습자가 어느 정도의 분석력을 지니고 있는가를 보면 된다. 다음, 전개의 과정에서 탐색과 입장을 다듬을 것을 요구하는 질문과 정리의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학습자가 취한 입장의 결과를 검토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논증의 타당성을 검토하면 된다.

#### (4) 授業指導 例案

문답법을 활용하는 수업지도 예안은 주제를 「이민」으로 선정하였다. 본 주제는 국민제도활동을 위한 주제로 선정된 적은 없

으나 그것 자체가 충분히 가치 활동을 일으킬 가능성은 지니고 있고 또 그 내용인 인구문제와 국가에 대한 일체감 등은 안보 교육적 차원에서 충분히 토의될 만한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 법리적 수업모형에 따라 문답식 수업예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수업은 예상 가능한 교수자의 질문과 학습자의 응답으로 진행된다. 먼저 간단한 수업전개계획과 그에 따른 수업지도예안을 제시하려 한다.

[ 授業 展開 計劃 ]

과 정	주 요 수 업 활 동	시간(100분)
도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민이 애국적 행위인가 비애국적 행위인가에 관한 제 의견이나 기사를 들려주면서 이민문제에 대한</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案 內</p>	10 분
전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민문제에 대하여 여러 다른 의견을 나타내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민문제에 대하여 문제인식과 입장을 취하게 함</li> </ul>	60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민문제에 대하여, 이민의 결과에 대하여 다각도로 생각해 하는 질문</li> </ul>	

과 정	주 요 수 업 활 동	시 간 ( 100 분 )
	<p>을 함으로써</p> <p>☆ 立場의 探索</p>	
	<p>○ 여러 立場의 結果를  탐색한 후 에 다시</p> <p>☆ 立場의 確認</p>	
정 리	<p>○ 마지막으로 학습자가 취한 立場 의 結果를 검토시키고 그에 따 른 結論을 내리도록 도와준다.</p> <p>☆ 假定의 檢査 및 結論</p>	30 분

[ 授業指導案 例示 ]

과정	주요항목	수 업 활 동	유 의 점
도입	* 교수자해설	<p>○ 이민문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한다. 다음과 같은 의견이나 기사를 들려 준다.</p> <p>— 어떤 사람은 이민을 애국적 행위라고 한다. 인구 4천만을 돌파하였으며 세계 제 3위의 인구밀도를 지니고</p>	<p>○ 수업단계에서 교수자는 어떤 편에 치우치지 말고 비교적 담담하게 문제를 제기한다.</p>

3. 統一安保教育 教授技法의 活用方案

과정	주요항목	수업활동	유의점
		<p>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민 자체가 애국적 행위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떤 사람은 이민을 비애국적 행위라고 한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조국을 떠나 이민을 가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이며 하나의 도피처를 찾아가는 행위이다.</li> <li>- 상기한 바 어느 쪽을 취하더라도 둘다 안보적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li> </ul>	
전개	○ 이민의 정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에게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게 한다.</li> <li>- [문]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민가는 것도 애국행위라고 하는데 그것이 진실일까?</li> <li>- [답]그 말도 일리가 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나가면 개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질 수 있다.</li> <li>- [문]정말 사람들이 애국하기 위해서 이민가는가?</li> </ul>	



과정	주요항목	수업활동	유의점
	<p>○ 이민문제에 대한 여러입장들</p>	<p>그것은 하나의 구실이고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좀더 잘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닌가?</p> <p>- [답] 물론 개인적인 행복 추구를 위하여 이민가는 것이라 생각되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좁은 국토에 과밀한 인구밀도하에서 이민은 곧 애국하는 길이 되기도 한다.</p> <p>- [문]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p> <p>- [답] 이민과 애국을 관련시키는 것은 역설이다. 나라를 사랑한다면 왜 버리고 떠나는가?</p> <p>○ 학습자에게 어떤 입장을 취하게 한다.</p> <p>- [문] 이민에 대하여 몇몇 의견이 나왔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p> <p>- [답] 나는 조국땅을 버리는 행위는 절대로 애국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p>	

과정	주요 항목	수업 활동	유의점
	<p>○ 이민문제에 대한 입장탐색</p>	<p>이민은 생각해 본적도 없다.</p> <p>- [문]당신은 어떤 쪽인가?</p> <p>- [답]그것은 좁은 생각이다. 해외에서 애국할 수 있는 길도 많이 있다. 나는 좁게 생각하는 애국은 좋아하지 않는다.</p> <p>○ 학습자에게 어떤 입장을 탐색케 한다.</p> <p>- [문]이민가는 사람들의 행위가 일종의 애국이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국내재산을 해외에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p> <p>- [답]그들의 행위는 애국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p> <p>- [문]이민가는 사람들의 행위가 비애국적이라고 하였는데 외국에 있는 우리동포가 우리나라를 지지하는 정치활동을 벌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자본투자를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p>	<p>* 학습자에게 추리력을 발휘하게 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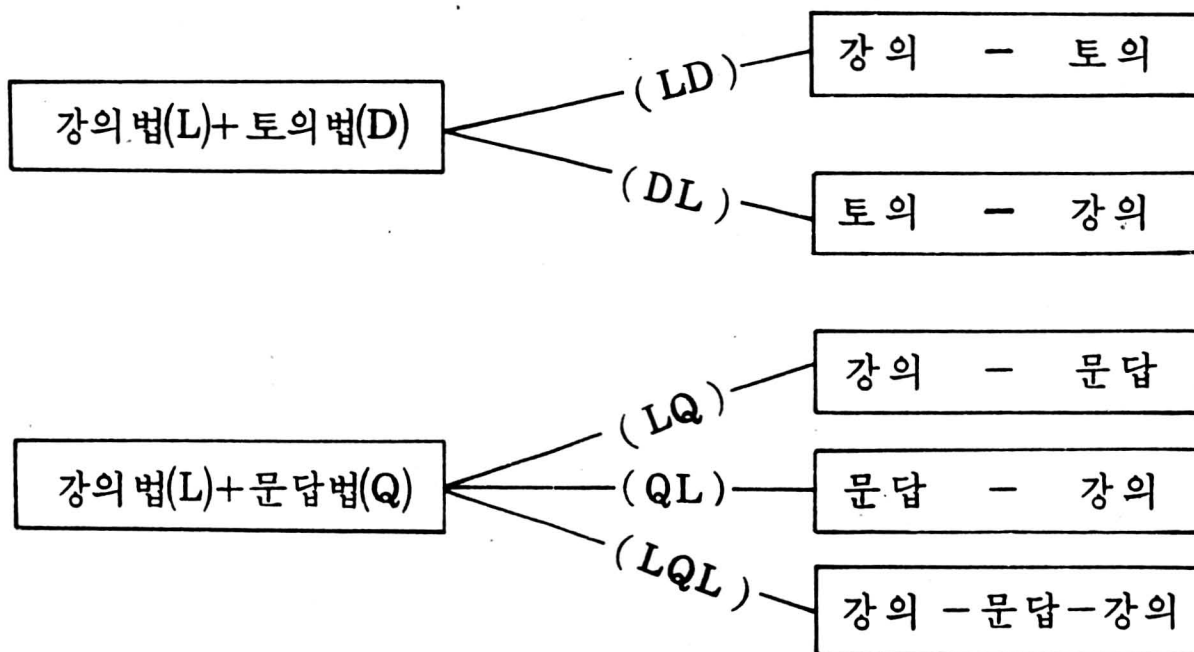
과정	주요항목	수업활동	유의점
	<p>○ 이민문제에 대한 입장 확인</p>	<p>- [답] 그들의 행위도 일종의 애국임에는 틀림없다.</p> <p>○ 학습자에게 어떤 입장을 다듬게 한다.</p> <p>- [문] 당신은 아직도 이민이 애국적(혹은 비애국적) 행위라고 생각하는가?</p> <p>- [답] 나는 여전히 이민이 애국적(혹은 비애국적) 행위라고 생각한다.</p> <p>- [답] 나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민이 애국적(혹은 비애국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반대로 생각한다.</p>	
정리	<p>○ 이민에 관한 견해 최종 검토</p>	<p>○ 학습자가 취한 입장의 결과를 마지막으로 검토시킨다.</p> <p>- [문]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일종의 애국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는가?</p>	<p>* 학습자가 최종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도와 준다.</p>

과정	주요항목	수업활동	유의점
		- [문]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비애국적 해외로 피라고 생각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 라. 混合法

### (1) 의미와 활용상 문제점

이 교수기법은 어떤 특정한 교수기법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의 필요성에 따라 앞에서 다룬바 3교수기법을 적절히 혼용하는 것이다. 강의법을 주축으로 하여 강의법과 토의법을 혼합한 유형이 있고 강의법과 문답법을 혼합한 유형이 있다. 또 각 유형이 몇개의 형태로 분류되기도 한다. 분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기한바 기호로 표시된 5형태의 혼합기법은 일반국민제도활동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1~2시간 단위의 수업시간을 兩分 혹은 三分하여 교수하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 LD의 교수기법은 강의식 교수기법을 활용하다 토의를 전개하는 것이고 DL은 토의를 하다 강의를 하는 기법이다. 그리고 LQL의 기법은 강의하는 도중 문답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된바 그림에서는 半分 혹은 三分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것이 시간의 배당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시간상의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다.

혼합법의 교수기법이 지니는 문제점은 강의법, 토의법, 문답법이 지니는 문제점을 전부 합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강의법의 경우 피교육자들을 수동적 위치에 두기 때문에 지루하게 만들고 학습 능력이 신장되지 못하고, 토의법의 경우 준비하는 것이 어렵고 시간을 낭비하며 교육대상수도 제한되어 있다. 문답법의 경우 拔問技術이 필요하고 단순히 학습자들의 기억능력만을 측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상기한바 각 기법이 지니는 문제점은 혼합법을 통하여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으며 혼합법을 제안하는 가장 큰 근거는 바로 그것이다. 구체적 예를 들어 설명하면 강의법이 일방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지루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면 기초적 사실을 강의법으로 전달한 후 피교육자들로 하여금 토의로 들어가게 하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소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혼합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교수자가 주어진 제도활동 시간에

이렇게 시간배정을 하는가이다. 그러나 그것은 각 교수형태에 관한 활동조건을 다음 절에서 고찰하면 교수자신이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

## (2) 活用조건과 活用절차

국민제도 활동을 위하여 앞에서 제시한바 제 혼합적 교수기법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조건과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가) 강의법 + 토의법 (LD)

이 교수기법의 목표는 통일안보교육의 모든 행동적 요소를 포함한다. 지식, 지적기능, 가치태도를 달성하는데 이 기법이 활용될 수 있다. 피교육자의 수나 시간과도 별 관계없이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 LD기법의 가장 큰 강조점은 기초적인 지식내용을 전달한 후 동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의된 가치관과 태도를 결정할 때 나타난다.

그 절차를 보면 먼저 강의는 교수내용의 배경이나 기본개념(Basic Concept)을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교수자 나름대로의 어떤 의견이나 결론을 주입하려 하기보다는 기초가 되는 지식을 가급적 중립적 입장에서 충실히 전달하면 된다. 다음 뒤따르는 토의에서는 학습자들 나름대로의 토의를 통하여 결론이나 일반화를 도출하게 된다. 피교육자의 수가 적을 때 즉 50여명 이내일 때는 교수자 주도의 탐구식 토의가 가능하나 그 수가 많을 때는 몇 사람의 대표가 토의를 벌이는 패

널이나 포럼토의를 활용하는 수 밖에 없다.

(나) 토의법 + 강의법 (DL)

이 교수기법의 목표는 앞의 DL기법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 DL기법의 가장 큰 강조점은 피교육자들이 내린 결론이나 합의에 관한 허점을 충실히 지적하고 보충하는데 있다.

그 절차를 보면 교수자가 미리 어떤 선입견이나 기초적인 지식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피교육자에게 토의를 갖게 한 후 토의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자들의 지적인 부족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偏見을 강의에 의하여 보완하는 것이다.

앞의 LD와 DL기법간의 차이는 전자의 경우 강의를 다분히 문제제기 혹은 심층적 사고를 유발하기 위한 썸틀(Springboard)의 성격을 지녔다면 후자의 경우에는 형성평가 이후 실시되는 보충심화를 위한 교수의 성격을 지녔다.

(다) 강의법 + 문답법 (LQ)

이 교수기법의 목표는 피교육자의 지식습득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 피교육자에게 최신의, 충분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知的 토대를 마련하여 주기 위한 것이다.

그 절차를 보면 강의법으로 교육을 이끈 후 강의 끝에 문답법을 활용하여 피교육자의 학습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 암기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으며 총괄평가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라) 문답법 + 강의법 (QL)

이 교수기법은 지식습득을 위한 강의법이 주가 되며 부차적으로

문답법이 활용되는 것이다. 교수 목표로는 지식이 중심이 되며 가치와 태도의 정의적 영역은 그 다음이다.

이 기법의 절차는 문답법을 통하여 피교육자들이 어느 정도의 先修학습요인을 지니고 있는가를 진단하고 또 몇개의 발산적 질문을 통하여 강의를 듣기 전에 학습내용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이다. 그 후 강의를 통하여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주지시키는 것이다.

(마) 강의법 + 문답법 + 강의법 (LQL)

이 교수기법은 강의를 하는 도중 문답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문답법의 활용은 1회로 끝날 필요는 없고 필요하다면 중간에 몇번이고 되풀이될 수 있다. 교수목표로는 역시 정의적 영역보다는 지적영역에 적합한 기법이다.

이 기법의 장점은 강의도중 피교육자들이 지루하게 느끼거나 강의 내용의 파악 여부가 불분명할 때 이 기법을 적절하게 활용 할수 있는데 있다.

강의법과 문답법을 혼용하는 각 기법의 차이점을 지적하면 LQ 기법의 경우는 문답이 총괄평가의 성격이 강하고, QL의 경우에는 진단평가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LQL의 경우에는 형성평가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지금까지 고찰한바 혼합법의 경우 수업지도예안은 생략하며 앞의 3기본법에서 제시된 수업지도예안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 4. 結 論

본 교재의 목적은 통일연수소에서 연수받은 통일안보교육 전문요원이 일반국민제도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기법을 개발, 제공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좀더 넓게 보면 본 교재는 우리나라 국민정신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지도방법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의도도 지니고 있다.

일반국민제도를 위한 교수기법의 개발을 위해, 우선 교수방법모형을 정립하였다. 국토통일원의 최근 「통일안보교육실시지침」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국민정신교육기본지침서」에 의하여 제시된 교수목표를 지식, 사고기능, 가치·태도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수단적 목표로 정하였다. 그리고 이 수단적 목표는 종국적 목표인 바람직한 통일·안보적 행동·행위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수단으로 보았다. 교수기법은 주입식 교수방법에 속하는 강의법과 탐구식 교수방법에 속하는 토의법 및 문답법, 그리고 동기법들을 합친 혼합법을 포함하였다.

각 교수기법의 심리학적 근거와 배경을 조사함으로써 실제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수자의 유념사항을 지적하였다. 또 각 교수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각 기법별 의미와 활용상의 문제점, 활용조건, 활용절차와 활용상의 유의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수업지도예안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법에 의하여 통일안보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하였으나 여러면에서 제약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국민제도활동의 현장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하여 전문요원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교수계획을 개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함을 면할 수 없었다.

통일안보교육을 비롯한 우리나라 국민정신교육의 개선은 이제는 목표와 내용의 차원을 넘어서서 방법상의 개선을 가져와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은 분명하므로 앞으로 본 교재의 불충분한 점을 보완할 후속적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본 교재의 활용자인 통일안보교육 전문요원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바는 본 교재를 직접 활용하기보다는 그 기본정신과 아이디어를 채택, 응용함으로써 통일안보교육의 내실화에 진일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統一安保教育 教授技法

1984年 2月 8日 印刷

1984年 2月 10日 發行

發行處 國土統一院  
統一研修所

---

## 統一安保教育 教授技法

1984年 2月 8日 印刷

1984年 2月 10日 發行

發行處 國 土 統 一 院  
統 一 研 修 所

---